



1 김영록 전남지사 (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 협약식
2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추진도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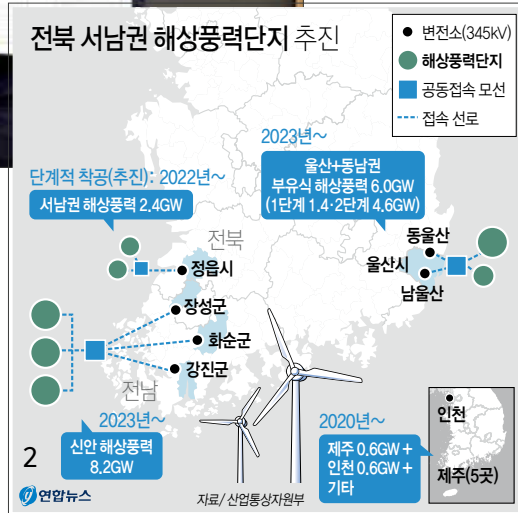
전남도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시책사업으로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블루 이코노미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청정 자원과 역사·문화자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개념의 발전 비전이다.

전남도는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부터 6대 프로젝트 세부 사업을 더욱 구체화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관광, 바이오, 미래 운송기기, 농수산, 스마트시티 등 6대 프로젝트의 35개 세부 사업도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서남해안 일원에 48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8.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12만여개의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해상풍력 제조업체 유치와 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발전단지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표 신항만에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도 개발한다. 민간 발전사의 대규모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구축과 배후단지, 해상운송 지원부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발전사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항만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계획 반영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식'도 예정돼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블루 이코노미 성과가 22개 전 시군에 확산할 수 있도록 6대 프로젝트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해상풍



력단지 조성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단지 사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면서 발전이익도 공유한다는 점이다. 전남도·신안군·신안군수협·새어민회는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어업인으로 구성된 새어민회와 신안군수협이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과 전남형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생 협약 후속 조치로 실무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자체·발전사·제조업체·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상생 협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 투자협약과 전남형 일자리 선포식도 예정됐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모두 힘을 모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세계 최고의 발전단지로 만들고 목포·영암·신안 등 전남 서남해 지역을 해상풍력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❶



전남의 새로운 바람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로 이루겠습니다."



48조 5천억원 투자, 450개 사유지·육성 상생형 지역 일자리 12만여 개 창출, RE100 산업단지 조성

